

# 페미니즘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손미희  
세종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임영자

## 目 次

I. 서론	3. 통합성(Synthetic Character)
II. 페미니즘의 이론적 배경	4. 해체성(Deconstructive Character)
III. 페미니즘의 전개	V. 페미니즘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1. 의상개혁 운동	1. 현대적 의미의 패션의 도입
2. 미술에서의 페미니즘	2. 안티-패션(Anti-fashion)
3.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	3. 성의 혼돈(Gender Confusion)
IV. 이원론(Dualism)의 접근방식을 통한 현대 패션의 페미니즘 특징	VI. 결 론
1. 도구성(Instrumental Character)	참고문헌
2. 표현성(Expressive Character)	Abstract

## I. 서론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이원론(二元論)이라 할 수 있다. 이원론은 만물의 근원인 두개의 양극적 요소들이—즉 남성/여성, 문화/자연, 이성/감성, 정신/육체, light(陽)/dark(陰)—평행을 이루며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원리로서 남성은 문화, 이성, 정신, light(陽)에 비유되고 여성은 자연, 감성, 육체, dark(陰)에 비유되었는데 전자는 도구성을 후자는 표현성을 설명하는데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이원론의 근거로 남성은 여성을 가부장적 상대로 종속시키며, 육체를 정신의 예속으로 보는 관점에서 여성의 위치를 억압하여 왔다고 볼수 있다.

현대 패션의 변화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되

고 있지만 페미니즘이 사회 문화적으로 여성을 주제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여성의 자아의식의 표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패션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본 논문에서는 페미니즘(feminism)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원론(dualism)으로 접근한 페미니즘 이론에 현대 패션이라는 물적기반을 통합시켜 보고자 한다. 따라서 패션에 접근되어질수 있는 페미니즘을 도구성, 표현성, 통합성, 해체성으로 규명하고 이것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페미니즘의 특징을 연구하며, 페미니즘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을 고찰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이원론으로 접근한 패션의 페미니즘 특징과 페미니즘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

향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페미니즘 패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앞으로 전개될 페미니즘과 21세기 미래 패션과의 연관성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다.

의상에 나타난 페미니즘과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채금석<sup>1)</sup>은 18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의 페미니즘의 영향에 의한 서양여성복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연구하였고, 강정화<sup>2)</sup>는 현대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의 표현 양식을 매니쉬 스타일, 선정적인 스타일, 앤드로지너스 스타일로 고찰하였으며, 전해정<sup>3)</sup>은 패션의 페미니티(femininity)를 1960년부터 1980년까지 나누어 연구하였다. 또한 최현숙<sup>4)</sup>은 패션과 여성의 신체에 관한 페미니즘을 콜셋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페미니즘은 여권주의, 여권신장, 여성해방운동, 남녀평등주의 등 여성의 권익과 성차별을 타파하고자하는 움직임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의 페미니즘 패션은 페미니즘적 의식이 담겨져 있는 디자인으로 여성과 남성의 동등성을 강조하기 위한 패션을 말한다.

## II. 페미니즘의 이론적 배경

절대적인 가부장권을 가진 남성에게 대한 여성의 종속적인 상황에 변화를 일으키는 이야기는 페미니즘과 함께 시작된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그 답변은 여성들이 그들의 처지를 향상시킬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자

신들을 의식적으로 조직화 하기 시작한 때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17세기에 비로소 개화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봉건사회의 압제에 도전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도 사회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남성들에 대해 가정에서의 억압에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여성해방운동은 프랑스혁명으로 본격화되었다. 프랑스혁명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 났다”고 하는 인권선언을 기초로 하여 남성의 해방을 인류 전체의 해방으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는 여성 종속을 토대로 한 남성의 해방일 뿐이었다.<sup>5)</sup> 이때 출판된 영국 출생 메리 윌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 : 1759~1797)의 <여권옹호론 :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1792)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최초로 완벽하게 표현하였고<sup>6)</sup> 현대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기초가 되었다. 19세기 여성들은 선거권, 피선거권은 물론이고 공직에 참여 할 수도 없었다. 물론 정치 단체 가입이나 정치 집회 참여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경제적 제한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sup>7)</sup>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여성해방론적 명제에 진지한 면을 부여한 유명한 철학자로서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 1806~1873)<sup>8)</sup>의 사상은 후에 여성의 참정권 획득 및 교육, 취업 기회 획득에 대한 전제가 되었다.<sup>9)</sup> 이러한 분위기는 유럽의 전 지역으로 파급되어 영국, 독일, 덴마크, 폴란드 등에서도 여성해방 운동은 끊이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노예제도에 반대하

- 1) 채금석, “Feminism이 서양여성복식에 미친 영향”, 국립창원대 교수논문집, 1993.
- 2) 강정화, “현대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3) 전해정, “페미니즘과 패션”, 서울여대 연구논총, 1994.
- 4) 최현숙, “패션과 여성의 신체에 관한 페미니즘 시각에서의 재조명(I)-코르셋의 예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권 1호, 1996.
- 5) 박미화, “현대미술에 나타난 페미니즘의 이해, 부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8.
- 6) Maggie Humm, [심정순, 염경숙(역)], 「페미니즘이론사전」, 삼신각, 1995, p.263.
- 7) 한국여성연구회, 「여성학강의」, 동녘, 1995, p.317.
- 8) John Charvet, Feminism, J. M. Dent & Sons Ltd, 1982, p.30.
- 9) 김선남, “여성잡지 기자들의 페미니즘 의식 연구”, 경희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23.

는 움직임이 흑인과 백인 여성들에게 자신들을 억압하는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정치적 조직을 결성할 기회를 주었다.<sup>10)</sup>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최초의 국제 페미니즘 대회가 열린 이후 여성들이 지위가 상승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세계1,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여성의 사회 진출은 현저하게 늘었으나 1930년대와 1950년대의 경제적인 대공황은 실업자의 증가를 가져왔고 여성들의 직업상실로 연결되어 여성의 가정복귀가 이루어져 여권운동의 후퇴가 불가피하였다.<sup>11)</sup>

새로운 여성운동은 무엇보다도 1960년대에 미국을 뒤흔들었던 저항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항거했던 흑인 운동, 학생 운동, 전쟁을 반대하고 자유를 주창했던 청년 운동, 제3세계의 출현 등 인권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여성해방의 이론과 실천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sup>12)</sup> 1960년대 이후의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한 생존권 및 평등권의 주장보다는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이 차별과 억압을 당하는 입장은 곳곳에 두루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여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려면 가정 역할에 관련된 자녀 출산, 자녀 양육, 성 관계 그리고 경제 생산에 참여하는 직업적 역할 등 네가지의 상호 연관된 구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sup>13)</sup>

특히 미국작가이며 행동주의자인 밀레트 케이트 (Millett Kate)는 <성의 정치학 : Sexual Poli-

tics(1970)>에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부권제 사회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 기질, 역할을 분석하고 여성의 인간화를 위하여 성의 혁명<sup>14)</sup>을 주장하였다. 즉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최소화시킨 양성문화의 지향으로부터 양성문화를 여성문화로 대치시키는 것까지 아주 다양한 방식을 제안하여 여성들을 여성성의 새장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였다.

1970년대는 미국 여성해방 운동이 실질적으로 출범한 시기였다. 성차별을 불법화하는 미국헌법의 평등권 수정안은 1972년 연방회의의 상원을 통과 했고 여성에게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했다. 또한 여성운동은 유럽과 북미지역으로 퍼져가면서 급격히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sup>15)</sup> 현대의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은 1960, 70년대의 여성운동의 기반으로 형성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혹은 “정의”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사상에 입각하고 있다.<sup>16)</sup>

198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썩수스(H. Cixous), 이리가레이(L. Irigaray), 크리스테바(J. Kristeva)의 철학적인 관점이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와 자크 랑캉(Jacques Lacan)과 같은 포스트모던 철학자들과 인식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sup>17)</sup>

많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뿌리가 시몬느 드 보브와르(Simone de Beauvoir)<sup>18)</sup>의 저서 <제2의

10) Susan Alice Watkins, [이소영(역)], 「페미니즘」, 이두, 1995, p.29

11) Susan Alice Watkins, 위의 책, pp.93~97.

12) 도규희·권미정, 「복식에 나타난 페미니즘과 에로티시즘」, 경북산업대논문집, 1992, p.415.

13) 김영경, 한국 여성 예인의 삶과 예술에 나타난 페미니즘 연구, 한양여전 교수논문집 Vol. 18, 1995, p.127.

14) 성의 혁명은 일반적으로 남성 및 여성들의 성행위에 대한 사회적 금기를 완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개인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성개념에 근거해서 사회적으로 구조된 성에 억압당하지 않을 때, 비로소 성의 자유는 일관성 있는 페미니즘 정치학안에 자리잡게 된다고 주장한다. Maggie Humm, p.162.

15) Susan Alice Watkin, 위의 책, p.126.

16) H. Leslien Steeves, "Feminist theories and media studies",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Vol. 4, 1987, p.100.

17) Rosemarie Tong, [이소영(역)], 「페미니즘사상」, 한신문화사, 1995, p.342.

18) John Charvet, Feminism, J. M. Dent & Sons Ltd, 1982, p.98.

성 : The Second Sex(1953)에서 보여진다.<sup>19)</sup> 여기에서 Beauvoir는 여성은 타자이며 타자성은 억압, 열등감과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억압당한 열등한 상황 이상의 것이라고 하였다. 오히려 타자성은 관대함, 다원성, 다양성, 그리고 차이를 허용하는 존재 방식, 사고 방식, 표현 방식이라는 것이다. 즉 Beauvoir는 타자성에 대한 예찬을 통해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을 설명하였다. 타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출발된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사상을 수용한 오늘날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후이센의 제2단계 포스트구조주의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아류로써 구조적 모순과 타자로서의 여성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페미니즘의 새 시대를 열었다.<sup>20)</sup> 해체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남녀 이분법을 해체시킴으로써 성의 차이를 무효화하고 이분법의 대립항을 이루는 각 항목의 정체성을 거부함으로써 자연적인 성(sex)이 아닌 문화 사회적인 성(gender)으로 시선을 돌려 사회적으로 구축되고 역사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즉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을 여성만의 해방운동으로부터 남녀 공동의 인간 해방, 주체성의 해방운동으로 전환해 나간다.<sup>21)</sup> 즉 페미니즘은 사회 문화적으로 남성에 비해 차별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노동권, 평등권, 생존권등의 제반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사회 운동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모든 인권운동의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통합적인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개혁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인간적 수준으로 존중한다는 가치 중립적 입장의 수립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따라서 최근에 페미니즘은 단일한 남성중심의 논리적 체계를 부정하고 이성 중심적 합리주의에 반대하여<sup>23)</sup> 다양한 주체

들간의 수평적 관계의 회복이라는 민주적 원리에 기초한 포스트모던 상황속의 다원주의적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 Ⅲ. 페미니즘의 전개

페미니즘은 여성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전개되어 왔으나 본 장에서는 Ⅳ장과 Ⅴ장의 분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사료되는 의상개혁운동, 미술에서의 페미니즘,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을 전개시키고자 한다.

#### 1. 의상개혁 운동(Dress Reform Movement)

계몽주의 사상이 기초한 18세기의 프랑스혁명 이후 여성들의 의식이 사회, 문화 뿐만아니라 정신적인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개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기존의 의상 스타일에 대하여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먼저 여성의 건강을 사회적 문제로 제기하였다. 즉 팍조인 콜셋은 장기의 변형과 출산의 위험, 소화불량등을 일으키며 낮은 목선(low necks)은 폐렴을 유발시켜 페미니스트들 뿐만아니라 의사 및 교육자들도 여성들에게 질병과 죽음을 초래하는 패션어블한 의상을 반대하였다. 뿐만아니라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의상이 여성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며, 여성들이 결혼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제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구성된 디자인이라고 주장하였다.<sup>24)</sup>

따라서 많은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의상개혁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최초의 의상 개혁자는 엘리자베스 밀러(Elizabeth Smith Miller)였으며 새로운 의상

19) 이소영, 정정호(공편),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한신문화사, 1992, p.344.

20) 월간미술, 1994. 8월, p.168.

21) 월간미술, 1994. 8월, p.172.

22) 전혜정, 앞의 논문, p.49.

23) 박미화, 앞의 논문, p.3.

24) Robert E. Riegel, "Women's clothes and women's rights", Dartmouth College, 1989, p.890.

에 대한 명칭은 1851년에 잡지책인 릴리(The Lily)를 통해 아멜리아 블루머(Amelia Bloomer) 여사의 이름을 따서 Bloomer 스타일이라 하였다. 이 Bloomer 스타일은 긴 소매이며 무릎정도 길이의 느슨한 튜닉과 그 밑에는 발목에 주름이 잡힌 터키풍(turkish)의 헐렁하고 볼록한 바지로 구성되어 있다.<sup>25)</sup> 그러나 Bloomer 의상은 당시의 의상 스타일과는 동떨어진 혁신적인 의상이었기 때문에 일반화될 수 없었고 페미니스트의 견지에서 볼 때 실패작이었다. 그러나 Bloomer 의상은 여성들에게 편리하고 기능적인 의상을 제안했던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으며 남자와 동등하게 여성도 바지를 입고 활동할 수 있다는 의식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sup>26)</sup>

페미니스트들은 전통적인 의상을 호색적이고 추잡함을 제공하는 여성노예의 의상이라고 말하고<sup>27)</sup> 합리적인 의상만이 순수한 여성다움을 유지하면서 노예의 신분(속박)으로부터 여성자신을 해방시키고 건강과 생기를 유지하며 모든 활동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였다. 페미니스트들은 의상개혁 문제의 가장 합리적이고 분명한 해결책은 여성이 남성적인 의상을 채택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sup>28)</sup> 결국 현대 패션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여성복에 남성화를 강조한 점이라 할수 있다. 페미니스트들의 개혁된 의상은 여성의 모든 위치를 변화시켰고 사회적 변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더욱 활동적인 영역을 확대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었다.

## 2. 미술에서의 페미니즘 (Feminism in the Art)

미술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말이었다. 이는 1960년대 중반에 급진적 페미니즘과 정치적 행동주의로부터 자극을 받은 것이었다.<sup>29)</sup> 미술사에서의 페미니즘의 연구는 1971년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없는가?>라는 린다 노클린(Linda Nochlin)의 글이 시발점이 되었다.<sup>30)</sup> Nochlin은 이제까지 여성 미술가의 숫자가 미미했던 이유를 여성 교육, 사회 제도, 관습등이 여성에게 불리한 성차별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무엇보다도 페미니스트 미술가들은 공예 분야에 있어서 여성들 작업의 의의를 주장함으로써 미술의 위계적 분류에 대항하였다. 즉 여성의 경험을 전달하는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여성의 전통적인 수공예는 고급미술에서 저급미술까지를 질적으로 구분하는 미학적 위계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미술로서의 설득력을 상실하고 단지 “공예”라는 범주로 묶여 전락되었고 공예 영역 역시 실용성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급한 미술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미리엄 샤피로(Miriam Schapiro)의 페마주(Femmage)<sup>31)</sup>와 페이스 링골드(Faith Ringgold)의 손으로 만든 퀴트작품은 전통적인 여성의 작품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1970년대 이후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모더니즘 미학의 거부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작가들의 작품은 대부분 육체를 주제로 한다. 여기에서의 육체는 모더니즘의 유행속에서 싹튼 반 모더니즘의 결정체이며, 육체를 통하여 단순한 재현 이

25) Robert E. Riegel, 앞의 논문, p.391.

26) 각미영, “여성해방운동이 서양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1850~1950)”, 중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39.

27) Robert E. Riegel, 위의 논문, p.395.

28) J. Anderson Black, Madge Garland & Frances Kennett, A History of Fashion, Quill New York, 1975, p.121.

29) Lucy Lippard, “Sexual Politics: Art Style”, New York, 1976, pp.28~37.

30) Thalia Gouma-Peterson, [이수경(역)], 「페미니즘 미술의 이해」, 시각과 언어, 1994, p.9.

31) 페마주(Femmage)는 여성들의 전통적인 여성의 기법을 사용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미술-깨매고 이어붙이고, 수 놓고 자르고 아플리케하고 등등-을 이루기 위해 여성들에게 역사적으로 부각된 실행들을 말함. Whitney Chadwick, [장희숙(역)], 「Feminism」, 열화당, 1994, p.36.

상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sup>32)</sup> 당시 페미니즘 미술가들은 여성 성기 형태를 직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육체와 신체작용에 대해 여성혐오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되게 여성의 육체를 강하고 건강하며 활력있고 편안한 것으로 묘사하였다. 뿐만아니라 여성 미술가들은 여성성을 통한 작품 활동으로 여성들이 미술의 영역에서 과거의 여성들이 잃어버린 역사를 회복하고 재해석하고자 노력해왔다.

대표적인 작가로 주디 시카고(Judy Chicago)와 미리엄 샤피로(Miriam Schapiro)는 새로운 여성주의 시각으로 여성의 삶과 예술을 재조명하고, 여성적 감수성에 의거하여 페미니즘의 실체를 가시화한 최초의 페미니스트 미술 작품들을 선보임으로써<sup>33)</sup> 작품을 통해 여성의 성적인 무한한 표현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80년대에는 새로운 차원에서 방향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즉 전통적인 방법론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하면서 페미니즘 미술에 새로운 이념통합의 접근이 시작되었다. 페미니스트 미술에 가장 근접한 모더니스트 미술이 쇠퇴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구조주의의 이론에 힘입은 페미니스트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이들은 남성적인 제도와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여성적인 것의 결정요인들을 밝혀 내기보다는 그것을 탈고정화, 탈중심화시키려 하였다.<sup>34)</sup> 이러한 제2페미니스트들로서 바바라 쿠르거(Barbara Kruger), 신디 셔먼(Cindy Sherman), 제니 홀저(Jenny Holzer)등이 있으며 이중 Kruger와 Sherman은 사진을 이용하여 자본주의 속에서 소비 문화와 여성, 혹은 대중매체와 여성의 관계를 묘사하였다. 이렇게 Kruger가 표현한 대표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1980

년대 이후는 절대적인 양식의 붕괴와 과거의 양식을 포함한 다양한 양식의 공존이라는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 3.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 (Post-modernism and Feminism)

포스트모더니즘은 여성적이고 장식적인 것은 무엇이든 일등한 것으로 분류하였던 19세기에서 20세기 모더니즘까지 계속되어 온 가치 체계에 대해 반발하고 주목받지 못했던 대상들에게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여성들을 포함한 제3세력(청소년, 흑인)들은 그들의 가치를 주장하게 되었으며, 사회는 이들의 담론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sup>35)</sup>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안정되고 지배적인 문화에 도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즘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은 지난 1980년대에 가장 중요한 두개의 문화 이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sup>36)</sup> 문화예술에 대한 비판, 탈중심화 현상, 또는 모든 고정된 미에 대해 의문시하는 페미니즘의 비전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과 대체로 일치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제3국의 문화양식과 저항문화, 흑인문화등 그동안 지배적인 문화가 되지 못하고 억압되었던 문화를 현대적인 경향<sup>37)</sup>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페미니즘과 유사하다. 즉 이는 페미니즘이 그간 무시되고 왜곡되어온 여성과 여성의 경험을 문화의 전면에 부각시키며 세계를 지배해 온 단일한 남성 중심의 논리적 체계를 부정하는 혁명적 성격이 이성의 탈권력화를 주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pluralism)적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다원주의는 바로 모든 양

32) 월간 미술, 1995(2), p.128.

33) 김홍희, 「여성 그 다름과 힘」, 삼신각, 1994, p.190.

34) Thalia Gouma-Peterson, [이수경(역)], 「페미니즘 미술의 이해」, 시각과 언어, 1994, pp.96~97.

35) 정홍숙, "Post-modernism 복식의 복고성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25호, 1995, p.72.

36) Nancy Fraser, Linda J-Nicholson, "Feminism/Postmodernism", 1990, p.19.

37) 유송옥·이은영·황선진, 「복식문화」, 교문사, 1996, p.239.

식과 주제에 대하여 열려진 태도이며, 단독의 스타일을 거부하는 절충주의로써 다양한 요소를 한 단위 안에 혼합하는 양식을 의미하여 이종교배의 복합적 스타일이라 할 수 있고<sup>38)</sup> 역사적 제 단계들이 보여준 단면들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sup>39)</sup> 이 다원주의적 세계관은 페미니즘의 확산과 심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의 포괄적인 개념중 특징적인 것은 억압된 것의 복귀, 전통적인 계급질서의 붕괴, 그리고 새로운 계급의 출현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영역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후기 산업사회의 정신적인 상황에 부응하는 해체주의라는 새로운 영역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해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아주 쉬운 듯하지만 Derrida는 “해체는 X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의미를 정의하려 할때마다 끝없이 연기된다고 했다. 해체는 그 이름이 지시하는 것처럼 구조 자체, 구조적이거나 구성과 화가의 주제, 그 계획, 직관 그리고 개념, 수사학을 해체하는 일부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사고들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를 수용한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의 사상을 가능하게 하고 타자에 대한 여성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페미니즘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타자성은 배제하고, 기피하고, 쫓겨나고, 불리한 조건하에 놓이고 특권이 없고, 거부당하고, 부름받지 않으며, 버림받고, 전이되며 주변부화 되는 것들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해체주의의 주요 주제이다.<sup>40)</sup> 해체주의자들은 자아 정체성과 진리는 없다는 생각과 언어에서 “여성적인”것을 배제 하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비록 Lacan과 Derrida가 여성의 성활동에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시도하였지만 배제된 “여성적”인 것에 대한 그들

의 서로 다른 진술들은 포스트모던-페미니즘에 상당히 공헌하였다. 해체주의 페미니스트들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써의 남녀의 이분법을 성차이의 무효화와 남녀의 대립항적인 항목들을 거부함으로써 생물학적인 성(sex)가 아닌 문화와 사회적인 성(gerder)로 시선을 돌림으로써 여성만의 해방이 아닌 남녀의 공동 해방이라는 휴머니티(humanity)를 강조하고 있다.

#### IV. 이원론(Dualism)의 접근 방식을 통한 현대 패션의 페미니즘 특징

형이상학적이며 실천 도덕적 해석으로 우주론적 철학인 이원론(二元論)은 동양문화를 일관하는 기본적인 질서 원리일 뿐아니라 서양사상의 기본 요소가 되어 의식과 물질, 육체와 영혼이라는 이원론(dualism)을 이루게 되는데 음양(陰陽)이 지니는 추상성은 이후 중요한 개념적 도구가 되고 있다. 동 서양의 기본 철학인 이원론을 20세기 서구 문명사회를 꿰뚫어 보는데 남다른 통찰력과 직관력을 소유한 작가 데이비드 H 로렌스(David H. Lawrence)는 Dark(陰)와 Light(陽)의 원리에 두고, 이 두 세계가 갈등과 투쟁을 통해서 평등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였다.<sup>41)</sup> 뿐만아니라 동양에서도 주역(周易)을 통해 음양이원론(陰陽二元論)을 설명하였는데 즉 만물이 음양이기(陰陽二氣)로 구성되고 이 양자가 상호 대립하는 가운데 태극(太極)에 의해서 통일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도구적)인 자아와 감성적(표현적)인 자아 사이에 분리 의식을 경험하고 있고 특히 여성은 전통적으로 표현적이며 사회적영역으로, 남성은 도구적이며 공격영역으로 동일시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들이 점점 공격영역으로 활동이 넓혀짐에 따라 전통적인 표현적 자질은

38) 김홍균,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諸 特性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56.

39) 김민수, 「모던 디자인 비평」, 안그라픽스, 1994, p.142.

40) Rosemarie Tong, 앞의 책, p.345.

41) 엄정옥, 임윤수, 「D.H. 로렌스의 二元論의 文學世界」,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6, pp.17~48.

갈등을 갖게 되고 여성들은 표현적 유산을 통해 얻은 직관, 부드러움, 인내 등은 도구적 직장 역할이 기대하는 자기주장, 경쟁심, 개인주의와 충돌하게 되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내의 해체주의는 형이상학의 근원에 있어서 형이상학에 감추어져 있는 소외되고, 배제된 한계점을 찾고 형이상학에 속하고,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계를 긋는 것이다. 해체론의 시작은 형이상학적인 이원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이원론을 부정함으로써 새로움을 창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체론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볼 때 남성적인 특질과 여성적인 특질의 이분법적인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다중성으로 전이되고 경계가 없어진 시점에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원론(二元論)의 접근 방식을 통하여 페미니즘의 관념론적 이론을 도구성, 표현성, 통합성, 해체성으로 나누고 현대 패션에 나타난 페미니즘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도구성(Instrumental Character)

철학적 관점에서의 여성과 신체를 이원론으로 해석하는 많은 철학자들은 지각과 사고를 조직하고 가치를 지정하는 이분법적 개념을 남성/여성, 정신/육체, 문화/자연, 이성/감성, 공적/사적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왼쪽은 도구성을 오른쪽은 표현성을 설명하는데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이원론의 근거로 여성은 남성의 종속을 설명하며, 육체를 정신의 예속으로 보는 관점에서, 패션은 여성신체를 인공적으로 변형시켜 여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요구라고 페미니스트들은 보았다.<sup>42)</sup> 결국 페미니스트들은 패션을 거부하게 되고 남성과 같은 형태의 의상을 착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용되는 페미니즘적 패션에서의 도구적 역할의 이미지가 남성복의 아이টেম을 사용하여 남성화된 스타일을 착용함으로써 표현되어진 남성적 이미지를 가지고 남성과 동등한 입장의 대우와 남성의 중심사고에 도전하며 남성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진 의식을 내포한 스타일을 의미한다.

19세기 여성해방운동으로 시작된 패션의 변화로 의미와 가치의 20세기까지 유지 되어온 남녀의 성별 차이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억압을 강조하던 헐터와 거추장스럽기 그지없었던 로브 스타일(robe style)이 없어지게 되면서<sup>43)</sup> 여성의 신체는 자유를 갖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확대되고 합리적이고 간편한 스타일이 선호되었는데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한 이후 페미니즘은 남녀의 동질권을 주장하면서 페미니스트는 해방과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은 패션에 있어 여성더움을 없애는 것으로 표현했다.<sup>44)</sup>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이 사회 각층에 일기 시작한 1960, 70년대는 남녀 평등에 대한 의식이 더욱 높아지는 때문 같이하여 다양한 팬츠 스타일이 여성들에게 유행하여 팬츠의 최고 절정기를 이루었다(그림 1). 그후 팬츠는 여성의 의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아이템이 되었으며 팬츠가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공인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즉 남녀 평등론에 입각한 페미니즘은 1970년대의 디자인으로 하여금 유니섹스(unisex)개념의 옷을 시도하게 하였다.

그러나 80년대가 되자 포스트모더니즘적 비평의 일환으로 페미니즘내에도 총체적 진리의 추구란 오류이며 세계를 보는 다양한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론을 정립하는데 주관적 입장을 갖는 것이 정당하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따라서 패션에 있어서도 도구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일

42) Evans & Thornton, *Women & Fashion*, New York Quartet Books, 1989, p.13.

43) Leslie W. Rabine, "A Woman Two Bodies: Fashion Magazines, Consumerism & Feminism" edited by Ferris, *Benstock On Fashion*, New Jersey: Rutgers Univ. Press, 1994, p.60.

44) 전해정, 앞의 논문, p.50.





(그림 1) Thigh Length Boots,  
「Fashion Source Book」, p.153.



(그림 2) Vivienne Westwood,  
Vogue(한국) (1996. 8), p.102.

어났는데, 남성의 외형적인 형태에서의 모방 뿐 아니라 남성의 아이템으로 개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 (그림 2).

최근에 실용성을 강조한 활동성 있는 팬츠 슈트는 여성들이 사회 참여도가 점점 높아지는 결과이기도 하며 보기에 아름다운 옷보다 활동하기 편한 실용적인 의상에 더욱 그 중심을 두고 있다고 본다. 요즘 유행의 모드는 여성이 남성화되는 것이 보편적인 스타일이다.

따라서 패션에서의 도구성은 의상개혁 운동 이후 여성들은 남성복 스타일을 모방하여 착용함으로써 합리적, 이성적, 논리적, 정신적이라는 남성적인 특질을 남성과 공유하며 남성의 사회적인 동등한 위치 획득을 목표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표현성 (Expressive Charac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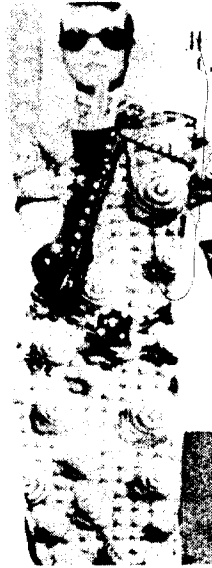
여성해방운동 초기에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성을 버리고 이성과 합리성, 기능성을 기초로 한 자유주의 이념을 표출하는 테일러드 슈트와 팬츠를 입음으로써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찾고자 하여 남성화를 추구하였다.<sup>45)</sup> 그러나 여성의 남성복화는 오히려 남성중심적 사고를 더욱 확고히 하여 남성의 우월성을 더욱 강조한다는 모순이 있음을 알게된 여성들은 형식에 얽매어 있고 획일적인 테일러드 슈트를 벗어내는 대신 인체를 드러내고 감정을 표현하며 여성다움(femininity)을 강조한 패션으로 나타내었다. 즉 패션에 전통적인 수공예 기법을 사용하여 여성적인 감수성을 부각시키며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여 여성성을 강조하고 있다(그림 3).

이러한 남녀 이질론의 강조는 80년대 이후 여성이 주체가 된 여성중심적 사고로써 남녀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가치있는 것으로 정당화하면서 의상에서 여성성의 장점을 도입한 의상을 착용하였다. 즉 과거의 여성들의 패션의 특성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인 억압이었다면, 최근에 여성들의 신체적 강조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고 있다. 즉 신체가 노출된 의상은

45) 김민자, "2차대전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의류학회지 Vol. 11, No. 2, 1987, p.15.



(그림 3) Christian Lacroix.  
Vogue(1995. 4), p.342.



(그림 5) Jean-Paul Gaultier.  
EIE 특별부록(1996. 10), p.14



(그림 4) 전신에 유방 모양의 의상을 입은  
Louise Bourgeois.  
월간미술(1995. 2), p.96.

급진적 페미니즘이 표방하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심리적 특성 그리고 생리적 기능이 남성보다 결코 열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는 자신감 있는 표현으로도 유행하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페

션의 예로써 노출 패션, 속옷의 겉옷화, 여성의 신체적인 특징을 부각시킨 디자인등이 있다. (그림 4)는 페미니스트인 루이스 부루조아(Louise Bourgeois)의 작품으로 여성의 유방의 모양을 모티브로 사용한 작품을 입고 있다. 이와 유사한 패션 디자인으로 장 폴 고티에(Jean-Paul Gaultier)의 착시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유방 모양의 옵티컬 프린트(optical print)를 이용한 디자인이다(그림 5).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까지도 여성의 표현성도 도입시켜 러플 장식과 선명한 색상과 문양, 재질의 활용으로 메이크-업과 긴머리등 여성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sup>46)</sup> 표현성의 특징 중 또 다른 하나는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여성성의 표현이 아니라 표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남성도 표현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까지도 표현적인 경향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인격에서의 성차이를 없애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 패션에 페미니즘의 표현성은 남성에 비해 결코 열등하지 않다는 남녀의 이질론을 강조하면서 서 감정적, 열정적인 패션을 통하여 여성성을 강

46) 유송옥 · 이은영 · 황선진, 앞의 책, p.255.

조하고 있다고 본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는 표현적인 특성만이 차이를 축소하고 결국 양성적인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도구성과는 상반되는 이분법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 3. 통합성(Synthetic Character)

통합성은 도구성과 표현성을 융합한 것이다. 이념형으로서 통합성은 도구적인 동시에 표현적인 특성을 지닌다.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sup>47)</sup>은 통합성을 사회학적으로 “양면가치의 공존”이라고 불리는 것 사이에서 일어나며, 이 상반된 두 요소가 변증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합쳐질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진정한 인간적 존재란 상반된 것들의 통일체이며, 도구성은 그 반대의 것인 표현성에 의해서 완성되고 이 두 가지는 융합되고 서로 구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동양의 여러 가지 전통에 있어서는 의식의 남성적인 양태와 여성적인 양태 사이에 역동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명상의 주요한 목표이고, 그것은 예술작품들 속에서 흔히 예증되고 있다.<sup>48)</sup> 고대 서양에서도 헤르마프로디토스(Hermaphrodite)라는 남녀 양성을 가진 신이 존재하였던 것을 보면 인간의 최고 목표가 통합된 양성상이었을 것으로 본다. (그림 6)은 잠들어 있는 헤르마프로디토스의 모습으로 유방과 여성적인 얼굴상 그리고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는 양성구유(兩性具有)된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그림 7)은 코펜하겐(Copenhagen)의 로젠버그 플레이스(Rosenborg Place)에 있는 초상화로서 오른쪽에 프레드릭 4세(Frederik IV)와 왼쪽에는 그의 누이 소피 헤데빅(Sophie Hedevig)의 모습을 양면에서 볼 수 있으며 중앙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통합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즉 동서를 막론하고 남성적인 것



(그림 6) 남녀 양성을 가진 신 Hermaphrodite, 「Le Louvre」, p.52.



(그림 7) Frederik. IV와 Sophie Hedevig

과 여성적인 것의 역동적인 통합을 표상해 주며, 사고와 언어의 경계가 초월되고 모든 대립이 통일체를 이룬 형상을 이미 수천년 전에 인간은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즉 인간 본성이란 상반적인 측면들의 변증법적 통일체이며, 자연상대에서 여성과 남성은 “인간”으로 초월되어야 하고, 양쪽 모두가 동일한 실존적 조건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성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양성구유(兩性具有)와 자웅동체(雌雄同體)의 뜻으로 이성의 요소를 공유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각각의 성이 하나로 통합된 의미로 마치 음양이 함께 어우러져 태극을 이루게

47) Robert K. Merton and Elinor Barber, “Sociological Ambivalence” in *Sociological Theory*, N. Y. Harper Torchbooks, 1967, pp.91~120. Lynda M. Glennon, [이수자(역)], 「女性和二元論」, 이화여대출판부, 1990, pp. 118~119. 재인용.

48) Fritjof Capra, [이성범, 김용정(역)],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증보3판)」, 범양사출판부, 1996, p.165.

하는 것과 같이 의상을 통한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라 보았다.

1980년대에는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다른시대, 다른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는 방식이 두드러졌으며 모더니즘적 문화와 사고 방식의 틀을 거부하려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패션에서도 다원주의, 절충주의적인 형태로 표현되어져 통합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패션에서의 통합성은 남성적 특질을 강조한 도구성과 여성적 특질을 강조한 표현성이 양면을 흡수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통합성은 현대 패션의 한 특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통합성은 양성의 특질을 결합하는 형태로 자유로운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림 8)은 지아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가 테일러드 자켓과 넥타이, 모자 쓴 남성 모델에 여성적 특질의 스커트를 입혀서 남성적



(그림 8) Gianni Versace,  
Vogue(1994. 4), p.144.

인 것과 여성적인 것을 한 몸에 코디네이션 된 디자인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패션에서의 통합성은 상대의 성으로만 생각했던 패션의 이미지를 자신속으로 통합시킴으로써 양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다. 이러한 디자인은 남녀의 우열의 존재를 희석시키며 평등한 인간으로써의 의미를 표출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지향하는 양성적 인간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본다.

#### 4. 해체성(Deconstructive Character)

해체론은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철학으로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이원론적 개념의 존재론적 고유성을 재구축하는 것이다.<sup>49)</sup> 해체론은 형이상학의 탄생지점에서 형이상학에 감추어져 있고 기억되지 못하고 있는 가능성을 현재속에 전미래(futur antérieur : 前未來)시제<sup>50)</sup>의 자격으로 재탄생하도록 유도하는 작업이며, 동시에 먼 미래에서 현실적으로 완료될 전미래 시간의 가능성을 현재속에서 수태시키는 작업으로 문학뿐아니라 예술에 새롭고 발전적인 돌파구를 갖게 되었다.

이 해체론을 남녀관계로 볼때 남자와 여자라는 이분법은 남자속의 여자, 여자속의 남자라는 내적 차이로 해체될 수 있다. 그리고 해체론에서는 하나의 의미는 반대의 의미를 억압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논리란 있을 수 없고 끊임없이 와해되며 자리바꿈을 하는 것이 해체론의 특징이라 했다. 따라서 여성의 성적 차이 자체보다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서로 다른 것으로 부터 특징지워진다고 보는 페미니즘은 패션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49) 김상환, 「해체론 시대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1996. p.164.

50) 전미래시제란 불문법에 나오는 시제로 전미래에 근사한 영문법의 시제는 미래완료형이다. 즉 미래적 과거로서의 순수 과거 또는 미래적 과거속으로 들어가면서 현재적 과거의 밖으로 외출하는 해체론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김상환, 위의 책, p.46. 50.

즉 Derrida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sup>51)</sup>은 의상에서 남성 대 여성의 성역할 고정 관념, 아이템, 착장 방식, 소재등을 해체시키고, 상호텍스트를 병행 인용함으로써, 의상에서 소외되었던 제3의 부수적인 것들을 수용하는 열린 사고로 포용한다고 본다.

해체주의적 스타일의 분석을 첫째 그 의미적 적용이 해체 철학의 지시 대상으로 떨어져 나와 “해체”라는 문자 그대로 적용되어진 경우들과, 두번째는 본질적으로 해체 철학의 예증으로서의 디자인을 그 철학내에 위치시키려는 일련의 시도들이라 할 수 있다.<sup>52)</sup> 그러나 대부분 건축, 산업 디자인, 시각 디자인, 패션등에서의 해체성은 첫번째 분석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1990년대에 캣워크(catwalk)에 자주 등장되고 있는 푸어 룩(poor look)은 많은 디자이너들의 새로운 디자인의 영감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대표적인 디자이너는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등이 있다.<sup>53)</sup> (그림 9)는 John Galliano의 변형된 영국신사 모자를 쓰고 자켓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파괴적인 팬츠가 전체적인 시선을 집중시키며 패션에 대한 고정 관념화된 일반적인 개념들을 해체시키고 있다.

또한 디자인의 변형은 그 의미적 적용이 해체 철학의 지시 대상으로 떨어져 나와 디자인을 해체 시킬므로 가능해진다. (그림 10)은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디자인으로 의상 구조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의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꼬인 재단법을 사용하여 옷의 형태를 뒤틀리게 함으로써 디자인에 있어 변형을 시도하고 패턴에 대한 고정 관념을 파괴시



(그림 9) John Galliano.  
EHE(한국) (1995. 2), p.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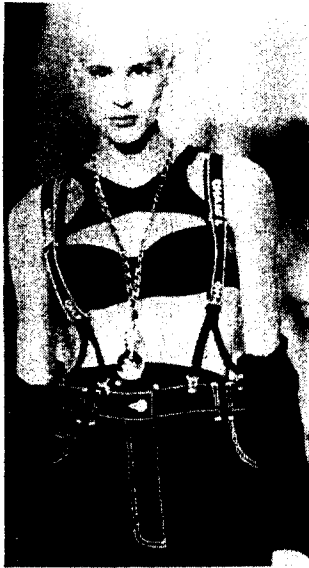


(그림 10) Alexander McQueen,  
Bazaar(1996. 9), p.227.

51)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Cristeva)에 의해 소개된 불란서 용어이다. Cristeva는 “시적 언어의 혁명”(La Revolution du Language Poetique)에서 기호체계가 발음 및 의미 위치상의 새로운 변별성을 가진 다른체계로 자리 바꿈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린다. 어떤 의미화 작업도 다양한 의미화 체계가 그러한 자리바꿈을 하는 하나의 영역(힘)을 가진 선들이 공간을 가로지른다는 의미에서)이 된다. 상호텍스트성은 여성 저술의 공통적 특징이다.

52) 김민수, 앞의 책, p.171.

53) 정현숙,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64.



(그림 11) Chanel의 bra-top(1992).  
E11E(한국) (1995. 6), p.39.

키어 “이런 옷은 피해 입은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소개하는 McQueen은 이러한 디자인의 변형을 통하여 성의 혁명을 꾀하고 있다고 본다. (그림 11)은 샤넬(chanel)의 작품으로 상의의 브라-탑(bra-top)은 티셔츠의 일 부분이었던 것을 암시하는 흔적(trace)만을 남긴 디자인이며 이러한 작품들은 디자인의 변형된 모습, 즉 재단 상태에서 꼬여지고 한쪽면이 사라지고 잘려져 나간 것등에서 비확정적인 관계들을 파생시키기 위해 변형된 형태를 취하며 이러한 암호를 통하여 끊임없이 의미적 정의를 지연(defer)시키고 있다고 본다.

즉 페미니즘적 해체 패션은 디자인의 틀에 얽매어 사소한 요소만을 변화시켜 새로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파격적인 독창성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독창성은 확실성을 배제하고 성적인 특질마저 해체시킴으로써 강렬한 여성의 미적 비판정신을 내포한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미래를 현실화한 미래 지향적 패션으로 남성적, 여성적이라는 고정된 틀을 털어버림으로써 가능해 진다고 본다. 이러한

해체성은 성의 개념을 초월시킴으로써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동등한 성의 균형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 V. 페미니즘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본 장에서는 이미 고찰 분석된 페미니즘 이론과 진개를 바탕으로 하고 현대 패션의 페미니즘 특징을 근거하여 페미니즘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을 현대적 의미의 패션의 도입, 안티-패션, 성의 혼돈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 1. 현대적 의미의 패션의 도입

페미니스트인 Amelia Bloomer는 여성해방 운동의 일환으로 여성들이 성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1851년에 여성의 바지착용을 주창하였다.<sup>54)</sup>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바지를 여성들에게 권장함으로써 여성 의상에 남장화를 유도하였고 남녀 동등화를 권유하였다. 여성의 권익과 자유를 위한 페미니스트들의 운동은 계속되어 여성들로 하여금 결국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옥외생활을 권장하면서 Bloomer 여사가 주창한 바지의 형태가 운동복으로 착용되기 시작하였다(그림 12). 즉 스포츠복은 여성해방 운동의 일환에서 부터 생겨났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19세기 후반의 여성들의 사회참여의 증가로 여성들을 기능적이고 활동적인 의복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여성화된 많은 수트의 변형물들은 남성수트의 기본형태와 직물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그림 13).<sup>55)</sup> 또한 20세기 초 현대적인 디자이너라 할 수 있는 Paul Poiret에 의해 Bloomer의상과 비슷한 디자인이 다시 연출되면서 대단한 유행을 일으켰다. (그림 14)는 1910년 Poiret가 아내를 위하여 만든 동양풍의 바지 스타일이다.<sup>56)</sup> 이처럼

54) Lynn Schnurnberger, "Let there be Clothes", Workman Publishing, 1991, p.282.

55) 앤 홀랜더, [채금석(역)], 「의복과 성(性)」, 경춘사, 1995, p.153.

56) J. Anderson Black, Madge Garland & Frances Kennett, 앞의 책, p.121.



(그림 12) Bloomer의상의 스포츠복,  
「A History of Fashion」, p.121.



(그림 14) Poiret's Costume,  
「A History of Fashion」, p.121.



(그림 13) Walky Costume of National Silk(1900),  
「The Culture of Fashion」, p.180.

Poiret는 Bloomer의 개혁의상인 바지 디자인과 유사한 형태를 발표하여 최초의 현대적인 디자이너로서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Poiret는 여성의상의 억압의 상징이었던 콜셋을 과감하게 그의 의상에서 제거함으로써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의상의 변화는 더욱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페미니즘의 영향이며 여성의 현대적 의상예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남성들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여성들의 사회적인 활동은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당시 사회는 여성들에게 역사상 처음으로 참정권 및 정치 참여권, 경제권이 주어지기 시작되었던 때로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마르크스 페미니즘 사상이 페미니즘운동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따라서 페미니스트들은 억압의 기제인 법적, 관습적인 규제를 없애 줄것과 사회적 계급을 획득함으로써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위한 투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당시 페미니즘의 사상들은 여성들의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원동력을 가지고 있었고, 여성들의 가치관의 변화는 현대 패션의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본다.

## 2. 안티-패션 (Anti-Fashion)

현대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적인 다원주의를 들 수 있다. 1940년대 이후 서구의 사회에서 가시화하기 시작한 하위문화 집단은 현대사회에서 지배문화와 공존하는 현상을 보이며 다양한 문화의 복합성을 가지고 주류유행에 대한 안티-패션(anti-fashion)을 형성함으로써 하위문화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페미니즘과 하위문화에 대한 패션의 새로운

시각은 억압된 문화라는 위치에서의 같은 입장을 표명하며 기존 사회의 가치등 문화적인 일면에 반항을 보이고 있다.

페미니스트인 주디스 에스텔레어(Judith Astellare)는 페미니즘에 관하여 반항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소간 조직적이고 여성의 열등성을 만들어낸 사회조직에 대해 반대를 표현해왔다.<sup>57)</sup> 즉 페미니즘의 의미는 각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단지 남성에 대한 여성의 특별한 억압만을 조명한 국한적인 개념에서 현재는 성(gender)과 관련이 없는 일상과 문화적인 면에서 저항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상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생각은 어떤 정해진 규칙이 아닌 개인적인 선호나 선택에 따라서 옷을 입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따라 자유의상(liberalized dress)은 자신에게 마음에 드는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자유선택의 생각은 현대 페미니즘에 상당히 기여했으며 서구 사회에서 자유선택에 대한 강력한 생각들이 작용되었다.<sup>58)</sup>

1960년대 초의 여성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룩은 미니스커트(mini skirts)와 이집트 헤어 스타일이었고 히피로브(hippie robe)나 컬(curl)의 유행이 공존할 때인 1960년대말의 룩은 학생 운동의 반문화적(counter-cultural!)인 룩으로 되었다. 이때는 기성문화에 대항하여 반사회적, 반문화적인 의상을 통해 반항하는 젊은이들의 하위문화 스타일로 형성되면서 패션은 바지류가 더욱 더 유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이 바지를 입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성(性)의 구별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었다(그림 15).

진보적 페미니스트들은 패션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와 데모의상을 위한 슬로건이 있는 티셔츠나 자루같은 진, 실용적인 슬더



(그림 15) Anti-fashion, 「A Hisstory of Fashion」, p.184.

백(shoulder bag), 신발은 편평하고 앞은 사각형으로 된 것 그리고 보석 대신 뼈지를 단 것등이 특징이었다. 또한 중고품 할인상점 스타일과 복고풍(retro chic)을 선호함에 있어 혁신적이기도 했다. 페미니스트들은 성희롱을 당하지 않기 위해 보일러 슈츠(boiler suit)나 니커보커(knickerbocker)를 입고 부츠를 신기도 했다(그림 16).<sup>59)</sup>

이들은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하이 패션을 거부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티-패션은 당시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져고 1960, 70년대의 젊은이들의 패션을 리드해갈 정도였다. 자유분방한 스타일을 선호했고 페미니스트 스타일은 이들만의 유니폼이 아닌 일반적인 패션의 부주제로 이해되었으며 이것들은 캐주얼 스타일의 아이템으로 상업화되어 패션과 무관하지 않게 되었다.

### 3. 성의 혼돈(Gender Confusion)

57) Sheila Rowbotham, Women in movement ; Feminism and social action, Routledge N. Y, 1992, p.6.

58) Valerie Steel, Paris Fashion : Feminism and Fashion, 1988, p.237.

59) Jacqueline Herald, Fashions of a decade : The 1970's, Batsford Ltd London, 1992, p.10.





(그림 16) Knickerbocker suit(1979),  
「Fashion Source Book」, p.153.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성별, 성체계에 관하여 양성적인 인간을 구성하는 것은 가장 긍정적인 남성적 성질과 여성적인 성질들을 밝혀내고 그것들을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스트들은 성에 대해 프로이트(Freud) 이론인 외디프스 콤플렉스와 거세 콤플렉스에 정면 도전함으로써 여성의 생물학적인 특성이 결코 남성에 뒤지지 않는다는 설득력 있는 이론과 함께 대두되었다. 즉 이러한 성과 관련된 페미니즘의 사상은 페미니즘 초기부터 현대까지 주요 테마로 다루어져 왔으며 양성화된 인간상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성(性)에 대한 뚜렷한 구분은 희미해지기 시작하였고 사회적인 여건들은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 페미니즘의 사회적 확산은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갖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녀 관계와 부부관계가 변화되고 전통적인 남성상은 자녀를 위한 “부모공동체”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sup>60)</sup> 의상에

서도 이처럼 여성들의 위치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유로운 의상스타일이 보이쉬(boyish)스타일과 함께 유행하면서였다.<sup>61)</sup>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젊은 세대들이 패션을 주도하면서 양성적인 의상 스타일은 본격화되었다.<sup>62)</sup> 1970년대를 풍미했던 Calvin Klein, Karl Lagerfeld, Donna Karan 등과 같은 디자이너들이 바지를 그들의 컬렉션에 팬츠 수트와 함께 선보임으로써 여성들의 패션은 한층 더 성에 대한 혼돈을 초래하였다고 본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1980년대에는 인간과 자연의 상징적인 요소들이 다윈주의적 개념과 절충주의 형태로 받아들여졌으며 성에 대한 경계는 더욱 무의미하게 되어 갔다. 이러한 성의 혼돈되는 개념은 의상에서 유니섹스 룩(unisex look),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 look), 보더리스 패션(borderless fashion) 등으로 표현되어지며 1990년대를 장식해가고 있다(그림 17). 이러한 분류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디자인에 있어서 재질이나 형태에 있어



(그림 17) Borderless fashion,  
WWD(한국), cover photo.

60) 조선일보, 1996년 11월 17일 24면.

61) Elizabeth Rouse, Understanding Fashion, BSP Professional Books, 1989, p.217.

62) 문진, “20세기 후반의 Anti-Fashion 연구”, 숙명여대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50.

양성간의 미묘한 상호교환에 있다고 본다. 또한 (그림 18)은 베르사체(Versace)의 작품으로 여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해주는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와 남성적인 이미지의 리사 마리 프레슬리(Lisa Marie Presley)의 모습으로 남녀가 가지는 양성간의 특성이 어우러져 양성이 모두 중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체성은 성에 대한 존재까지도 의심하게 함으로써 여성과 남성 모두 탈중심화하여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패션에서의 성에 대한 해체로써 표현되고 있다. 해체 패션은 미래지향적인 패션으로 성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성의 혼돈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9)는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의 세계 투어 콘서트의 장면으로 고대 그리스 사원과 공상과학적 이미지의 우주정거장을 동시에 묘사한 세트<sup>63)</sup> 위에 환상적인 특수효과 및 현란한 영상과 무대 구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현재적인 미래를 무대위에 시도함으로써 Derrida의 해체론을 표현해주는 듯하다. 즉 Derrida가 양분된 시제를 갖게 하는 것이 해체성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였듯이 이러한 그림의 제시는 보는 이로 하여금 고정된 시제적 관념을 해체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즉 해체성의 미래와 과거를 오가는 작업은 더욱 풍부한 미래적, 해체적 디자인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세기 현대 패션의 전개는 의상으로 하여금 성의 명확한 분리에서부터 성의 혼돈에로의 전이를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기초적이며 내면적인 영향력은 20세기에 걸쳐 전개된 페미니스트들의 여성에 대한 권리와 자유를 주장한 페미니즘의 영향이라 보며 이로 인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고정화된 성별 체계를 흔들어 놓았고 여성들은 이러한 자유에 대한 의지 및 양성적 인간상을 의상으로 표현하고자 시도해 왔다고 본다.



(그림 18) Gianni Versace's jeans couture. Vogue(Italia) (1996. 9)



(그림 19) Michael Jackson's future fashion, 조선일보(1996. 9. 21), 19면.

## VI. 결 론

본 논문은 현대 패션을 특징짓게 하는 원인들 중의 하나인 페미니즘 패션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페미니즘 사상과 전개과정을 수용하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 라는 점과 현대 패션의 페미니즘의 특징은 무엇이며,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대 패션의 페미니즘 특징을 이론론적 접근방식을 통해 분석하였고 또한 페미니즘이 현

63) 조선일보, 1996년 9월 15일 21면.

대 패션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이원론의 접근방식을 통하여 현대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의 특징을 도구성, 표현성, 통합성, 해체성으로 규명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구성은 자유주의 페미니즘 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패션을 다루는 페미니스트들은 패션이 “남성용시”를 의식한 성적인 도구로써 다루어졌음을 인식하여 패션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의상개혁 운동을 통해 패션에서의 여성성을 버리는 대신 남성적인 룩을 선택하여 남성과 동등한 위치를 희망하고 남성중심적인 사고에 도전하며 남성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였다. 여성이 참정권 획득 이후 페미니즘은 남녀의 동질권을 주장하면서 이전의 “여성다움”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표현성으로 도구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성복의 남성복화는 오히려 남성중심적인 사고를 더욱 확고히 할뿐아니라 남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모순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된 표현주의자들은 남녀의 이질론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성이 주체가 되어 여성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성들의 신체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시킴을 포함하고 있다. 즉 현대 패션에서의 표현성은 여성의 페미니티를 강조한 소재 및 색채의 사용과 디자인으로 몸매를 강조한 보다 컨셔스(body conscious) 스타일과 신체의 노출, 속옷의 겉옷화인 데샤빌(deshabille) 스타일등으로 표현되어 지고 있다.

셋째, 통합성은 도구성과 표현성의 융합된 이념형이다. 양면가치의 공존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상반된 두 요소가 변증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합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패션에서의 통합성은 1980년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의 양식을 차용하는 방식이 두드러졌으며, 남녀의 성차별을 거부하고, 인체를 여러각도로 파악하여, 기존의 질서가 무시되고 통합된 형태로 표현되어 지고 있다. 통합성으로 표현된 패션은 자웅동체(雌雄同體)의 양성성의 표현으로

양성의 특징을 결합하는 디자인으로 남성과 여성의 의미를 동시에 느낄수 있는 것이다.

넷째,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철학적인 관점으로 시작된 해체성은 소외된 타자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페미니즘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지향하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개념을 해체시키고 단지 “인간”으로써 미래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도는 해체적 패션과 일치한다고 본다. 페미니즘적 해체 패션은 미래를 현실화한 미래지향적 패션으로 남성적, 여성적이라는 고정된 틀을 털어버림으로써 성립될 수 있다. 패션에서 해체성의 표출은 소재, 디자인, 착장방식등을 통해 표현되어지고 있다.

페미니즘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으로는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즘을 전개시킨 이후 여성복에 남성복의 형태가 모방되어 현대적인 의미의 패션이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페미니스트인 Bloomer 여사가 바지 착용을 주창한 이후 바지는 스포츠복으로 입혀지게 되었다. 20세기초 Poiret의 바지 스타일과 의상에서의 콜셋의 추방은 여성으로 하여금 보다 활동적인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페미니즘의 사상은 여성들의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에 원동력이 되었고 여성들의 가치관의 변화는 여성 의상의 변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60년대에 전개된 페미니스트들의 의상은 안티-패션으로 분류될 수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성희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구식의 스웨터나 슬로건이 있는 티셔츠, 진, 보일러 슈트등을 입었으며 이러한 안티-패션은 당시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져고 1960, 70년대의 젊은이들의 패션을 이끌어 갔다. 페미니스트들의 의상 스타일은 개인적인 선호나 선택에 따라 자유분방하게 옷을 입는 자유 의상(liberalized dress) 스타일로 이것은 이들만의 스타일이 아닌 일반적인 패션의 부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페미니즘이 현대 패션에 미친 가장 큰 특징적인 영향은 성의 혼돈으로 남성과 여성의 엄격한 성의

구분은 사라지고 이로 인해 패션에 양성적인 인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즉 성의 혼돈은 uni-sex look, androgynous look, borderless look으로 패션에 나타났으며 소재나 디자인에서도 양성간의 미묘한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해체론은 패션에서 성에 대한 존재를 희석시키고 양극화시킴으로써 성에 대한 해체적 패션이 등장하고 있다. 해체 패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미래 지향적 스타일로서 성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성의 혼돈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의 분석과 결과는 21세기의 페미니즘 패션에 대한 전망과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페미니즘의 전개 과정에서 미술이나 포스트모더니즘 이외의 문학, 영화, 음악, 광고 등의 분야에서 패션과의 연구가 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한국여성연구회, 「여성학강의」, 동녘, 1995.
- 김민수, 「모던 디자인 비평」, 안그라픽스, 1994.
- 김상환, 「해체론 시대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1996.
- 김홍희, 「여성 그 다름과 힘」, 삼신각, 1994.
- 엄정옥, 임운수, 「D. H. 로렌스의 二元論的 文學世界」,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6.
-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복식문화」, 교문사, 1996.
- 이소영, 정정호(공편),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한신문화사, 1992.
- Fritjof Capra, [이성범, 김용정(역)],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증보3판)」, 범양사출판부, 1996.
- Maggie Humm, [심정순, 염경숙(역)], 「페미니즘이론사전」, 삼신각, 1995.
- Rosemarie Tong, [이소영(역)], 「페미니즘사상」, 한신문화사, 1995.
- Susan Alice Watkins, [이소영(역)], 「페미니즘」, 이두, 1995.
- Thalia Gouma-Peterson, [이수경(역)], 「페미니즘 미술의 이해」, 시각과 언어, 1994.
- Whitney Chadwick, [장희숙(역)], 「Feminism」, 열화당, 1994.
- 앤 홀랜드, [채금석(역)], 「의복과 성(性)」, 경춘사, 1995.
- 김민자, 「2차대전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의류학회지 Vol. 11, No. 2, 1987.
- 김선남, 「여성잡지 기자들의 페미니즘 의식 연구」, 경희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김영경, 「한국 여성 예인의 삶과 예술에 나타난 페미니즘 연구」, 한양여전 교수논문집 Vol 18, 1995.
- 김홍균,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諸 特性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광미영, 「여성해방운동이 서양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1850~1950)」, 중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도규희·권미정, 「복식에 나타난 페미니즘과 에로티시즘」, 경북산업대논문집, 1992.
- 박미화, 「현대미술에 나타난 페미니즘의 이해」, 부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문진, 「20세기 후반의 Anti-Fashion 연구」, 숙명여대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정홍숙, 「Post-modernism 복식의 복고성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25호, 1995.
- 강정화, 「현대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전해정, 「페미니즘과 패션」, 서울여대 연구논총, 1994.
- 정현숙,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최현숙, 「패션과 여성의 신체에 관한 페미니즘 시각에서의 재조명(I) - 코르셋의 예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권 1호, 1996.
- 채금석, 「Feminism이 서양여성복식에 미친 영

- 향”, 국립창원대 교수논문집, 1993.
- John Charvet, Feminism, J.M. Dent&Sons Ltd, 1982.
  - Sheila Rowbotham, Women in movement : Feminism and social action, Routledge N.Y, 1992.
  - Valerie Steel, Paris Fashion ; Feminism and Fashion, 1988.
  - Jacqueline Herald, Fashions of a decade : The 1970's, Batsford Ltd London, 1992.
  - Evans & Thornton, Women & Fashion, New York Qartet Books, 1989.
  - Elizabeth Rouse, Understanding Fashion, BSP Professional Books, 1989.
  - John Charvet, Feminism, J.M. Dent&Sons Ltd, 1982.
  - J. Anderson Black, Madge Garland & Frances Kennett, A History of Fashion, Ouill New York, 1975.
  - H. Leslien Steeves, “Feminist theories and media studies”,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Vol. 4. 1987.
  - Lucy Lippard, “Sexual Politics : Art Style”, New York, 1976.
  - Robert E. Riegel, “Women's clothes and women's rights”, Dartmoth College, 1989.
  - Nancy Fraser, Linda J-Nicholson, “Feminism/Postmodernism”, 1990.
  - Leslie W. Rabine, “A Woman Two Bodies : Fashion Magazines, Consumerism & Feminism” edited by Ferris, Benstock On Fashion, New Jersey : Rutgers Univ. Press, 1994.
  - Lynn Schnurnberger, “Let there be Clothes”, Workman Publishing, 1991.
  - 조선일보, 1996년 9월 15일 21면, 1996년 11월 17일 24면.
  - 월간미술, 1994. 8월, 1995(2).
  - 멋을 아는 생활, 제일 모직, 1995년 Summer,

Autumn.

- Bazaar(한국판), 1996. 9.
- Collection, 90/91 A/W.
- ELLE, 1993~1996, ELLE(한국판), 1994. 6.
- Fashion, 1995~1996, Fashion Today, 1995. 4
- W.W.D(한국판), 1992~1994.
- Vogue, 1993~1996, Vogue(Italia), 1996. 9.

## ABSTRACT

### A Study on the Influence Made by the Feminism on Comtemporary Fashion

A history of man is the history that men have governed women with the thought that men are superior to women by the dualistic way of thinking called men/women, culture/nature, reason/emotion, spirit/body, and light/dark. The former has used to explain the instrumental character, the later the expressive character. On the basis of this dualism, men have oppressed women's position.

It had to take long time that women challenge the sex distinction, insist on their rights, and accept the social recognition. It was in 20 century that the franchise was granted to women and women's organizations were formed.

In this study, feminism characteristics of the comtemporary fashion, were investigated throught the dualism way of approach.

Feminists have applied the fashion as the mass media to assert their rights. Feminists have chosen the masculinity instead of the femininity and this feminism fashion became a major cause characterizing 20th century contemporary fash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made by feminism on the contempor-

ary fashion.

The movement in the dress reform has the historic background from the costumes for the class and sex to the costumes for women's rights and freedom. The feminism in the art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and does not conceal the difference. In the post-modernism and feminism, by the second feminists such as C. Sherman and B. Kruger, the visual media which is accepted post-modernism and post-structurism destroys a fixed idea and deconstructs the existing established concept.

The instrumental character is closely related to the liberal feminism. Feminists have the hostility against the fashion due to acknowledging that the fashion has treated as sexual instrument. Therefore feminists have chosen the masculine look instead of the femininity and tried to free themselves from the men's oppression.

The expressive character is the opposite concept to the instrumental character and is related to the radical feminism that emphasizes the women's sex. The expressive character in the contemporary fashion expresses the elegance, sexy and glamour that emphasizes the femininity, and the materials such as ruffles, bows, frill, silk, chiffon and organza were used as items that emphasizes the expressive character.

The synthetic character is a type of idea and

unites the instrumental character and the expressive character. This can be also told as the coexistence of double-faced value and two conflicting elements can be added through the dialectrical process.

The fashion expressed by the synthetic character can simultaneously feel the men and women's meaning as the type combining two features by expressing the bisexuality. This fashion with the synthetic character is expressed in fashion by the design transformation, joint ownership of the opposite sex of both items and dressing method.

From J. Derrida's philosophic point of view, the deconstructive character had a concern to the alienated others and found a new breakthrough in the arts. Recently through the expression of deconstruction, the deconstructive elements such as the mixed use of texts, the criticism against the subject, the rise of alienated others, and the escape from phallogocentrism are represented in fashion. As the means to express the deconstructive character in fashion, the destructive materials, designs and dressing methods are used.

The three influences made by the feminist thought on the contemporary fashion investigated : first, the introduction of the fashion with contemporary meaning, second, the anti-fashion, third, the gender confusion.